

## 풍수지리와 주거 공간

Feng Shui Theory on Dwelling Site



박 시 익 / 정회원, 명당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Park, Si Ik / Ref. Architect, Myung-Dang Architect Office  
p0012@chol.com

### 명당은 고기압, 흉지는 저기압

풍수지리 이론에서 명당이란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그리고 후현무 등 사면을 산이 둘러싸아 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을 말한다. 산이 바람을 막아주면 바람의 속도는 약해지고, 바람의 속도가 약하면 기압이 높아 고기압 지대를 이룬다. 반면 흉지는 바람의 속도가 강한 곳이며, 바람의 속도가 강하면 기압은 낮아 저기압 지대를 이룬다. 그러므로 명당은 고기압 지대이며 흉지는 저기압 지대로 구분된다.

#### 1. 서론

풍수지리 이론은 사람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으로서 “좋은 땅을 선정하는 방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풍수지리 이론이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궁궐 사찰 그리고 묘지 등 전통건축 전반에 걸쳐 중심적인 사상으로서 이용되어 왔다. 풍수지리 이론을 오늘날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그 이론의 합리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된다.

#### 2. 명당은 고기압 지대이며 흉지는 저기압 지대

풍수지리 이론은 한 지역의 기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바람과 물 중에서도 바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바람과 명당과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장풍”이라는 말이 있다. 장풍이란 바람을 막아준다는 의미이다. 즉 한 지

역이 바람을 막아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명당으로 구분된다. 바람을 막아주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바람이 적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곳은 평상시에도 바람의 속도가 작은 것을 말한다.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없는 들판이나 강변 등은 바람이 많다. 바람이 많은 곳은 명당이 아닌 곳으로 구분된다. 바람이 많다는 것은 바람의 속도가 큰 것을 말한다.

풍수지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은 현대적인 용어로는 공기 흐름 즉 기류를 의미한다. 현대 물리학의 유그릿드 이론에서 기압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며 한 지역의 기압은 바람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sup>1)</sup> 즉 바람이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은 저기압이며, 바람이 약한 곳은 고기압으로 구분된다.

TV나 방송의 기상 예보 시에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기압이 낮아 저기압을 이루며, 반면 청명하고 바람이 없는 날에는 기압이 높아 고기압을 이루는 것을 자주 방송한다. 동일한 지역에서도 고도가 낮을수록 기압은 높고 고도가 높을수록 기압은 낮아진다는 사실 등은 물리학에서 오래전에 밝혀진 내용들이다.

풍수지리 이론에서 명당이란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그리고 후현무 등 사면을 산이 둘러싸아 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을 말한다. 산이 바람을 막아주면 바람의 속도는 약해지고, 바람의 속도가 약하면 기압이 높아 고기압 지대를 이룬다. 반면 흉지는 바람의 속도가 강한 곳이며, 바람의 속도가 강하면 기압은 낮아 저기압 지대를 이룬다. 그러므로 명당은 고기압 지대이며 흉지는

1) 유그릿드의 유체역학에서 바람의 속도는 통로의 폭에 반비례 한다. 바람의 통로가 크면 바람의 속도는 작아지나 바람의 통로가 작으면 속도는 커진다.

1 바람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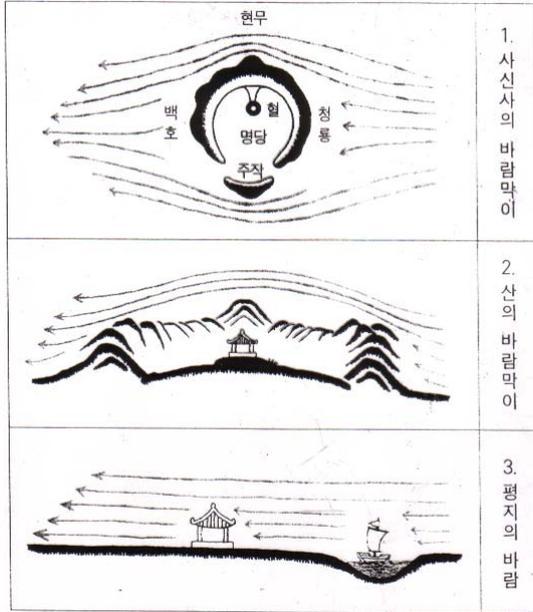


그림 1. 명당과 강기에서의 바람

저기압 지대로 구분된다.<sup>2)</sup>

현대 물리학의 이론에서 기압은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높고 지상으로 올라갈수록 낮다. 지표면 이하로 내려갈수록 기압은 높아진다. 높은 산의 정상부등은 비록 전망은 좋아도 바람이 많고 기압은 적어 명당은 되지 못한다. 높은 산에서는 밥이 설익는 것도 저기압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압과 사람의 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바람이 부는 저기압의 날씨는 사람들이 신경통이나 류마치스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다. 이것은 저기압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바람의 속도는 지세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산이나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바람이 작아 고기압 지대를 이룬다. 그러나 바람막이가 없는 곳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저기압 지대를 이룬다.

### 3. 전통건축 구조에서의 기압 조절

전통 건축의 기법 중 기압을 이용하는 방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풍수지리 이론 중 바람과 명당과의 관계에 대하여 '산에서 기운은 움푹 따라 흐르나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운은 흩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이 문장에 기운은 바람에 의하여 흩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곳에 명당이 이루어진다고 나타나 있다.

1) 배산임수(背山臨水)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배치 방법으로는 남향 배치 방법이 있다. 남향 배치 방법은 태양빛을 실내에 깊이 받아들여 난방과 채광 그리고 의학적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풍수지리 이론 중 건물 배치방법으로는 배산 임수가 대표적이다. 배산 임수란 산을 등지고 물이 있는 낮은 쪽을 향하는 배치방법을 말한다. 풍수지리 이론에서는 남향 배치 방법보다 배산 임수 배치 방법을 더욱 이상적인 배치방법으로 여긴다. 배산 임수 배치가 남향배치보다 더욱 좋은 배방법인 이유는 바로 실내의 공기 압력에 있다.<sup>3)</sup>

바람은 기압에 의하여 고기압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흐른다. 주거 공간에서 태양이 뜨는 오전 시간에 바람은 강물이 있는 저지대로부터 산으로 고지대로 올라간다. 건축물에 발생하는 풍압력에 있어 바람을 맞이하는 전면은 +압력 즉 고기압이, 그러나 건물의 뒷면은 -압력 즉 저기압이 발생한다.<sup>4)</sup>

배산 임수로 배치된 건물에서는 능선 따라 올라가는 바람이 실내에서 모여 기압을 높이는 작용 즉 고기압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배산임수 배치는 고기압을 이루는 배치이다. 그러나 만약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게 배치된 건물은 “-” 압력에 의하여 저기압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건물 배치방법에 따라 실내의 기압은 달라진다. 배산 임수 배치방법은 실내의 기압을 고기압으로 만들어 거주자에게 건강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의 기법이 라고 분석된다.

2) 전착후관(前窄後寬) ; 전착 후관이란 대지 조건 상 도로에 접한 전면의 폭은 좁고 반면 후면의 폭이 넓은 땅을 말한다. 전착 후관을 좁은 땅으로 보는 이유역시 기압과 관련된다. 전착 후관의 대지에서는 좁은 전면의 폭으로 들어온 바람이 내부에서 넓은 지역을 만나게 되면 바람이 넓게 분산되면서 기류의 속도가 낮아져 고기압이 형성된다.

3) 전저후고(前低後高) ; 전저 후고의 배치는 건물의 전면에 있는 마당이나 대문의 위치는 낮고 뒷면에 있는 건물은 높은 곳에 자리 잡는 배치를 말한다. 전저

3) 박시익, 1999,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p.184

4) 구조물의 풍하중 계산시 바람의 방향에 의하여 건축물의 전 후면에 +압력 혹은 -압력이 구분된다.

후고의 원칙에 의해 전통 건축 배치에 있어 대문과 마당은 낮은 곳에, 그러나 본 건물은 기단위에 또는 비교적 높은 곳에 배치한다. 대문을 낮은 곳에 배치하면 대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마당을 통하여 실내에 들어올 때 상승하면서 고기압을 이룬다.

4) 대문은 안 여단이 ; 전통건축의 주택이나 궁궐 그리고 사찰 등의 대문 개폐 방식은 모두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밀고 들어가는 안여단으로 되어 있다. 출입문을 안쪽으로 여는 이유는 바람의 작용에서 찾게 된다.

출입문이 안 여단인 경우 출입문을 열 때 마다 대문은 부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바람을 주택 내부로 밀어 보낸다. 주택 내부에 바람이 모이면 실내공기는 고기압을 이룬다. 이와 달리 대문이 밖 여단인 경우 대문이 열릴 때 마다 마당과 실내의 바람이 대문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되며, 그 결과 실내의 기압은 저기압이 된다. 이와 같이 전통건축에서 안 여단이 대문은 실내 공기를 고기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5) 대청의 맞바람 ; 한옥의 대청은 마당을 정면으로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으며 대청의 후면에는 뒷마당이 자리 잡고 있다. 대청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이다. 특히 더운 여름에 대청에 누워 있으면 무척 시원한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시원한 대청에서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우리네 할머니 들이 말씀하시기를 대청에서 잠을 자면 감기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청에서 잠을 자면 감기 드는 이유를 풍수지리 이론으로 분석하면 대청은 바람이 통과하는 저기압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청의 전면에는 출입문이 없으나 대청의 후면 벽에는 작은 문이 있다. 대청의 후문은 평상시에도 닫아 둔다. 대문과 안 마당을 통해 들어온 바람은 대청 위로 올라온다. 대청 위로 올라온 바람은 대류현상으로 천장을 통해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대청의 뒷문을 통하여 후면으로 빠진다. 바람이 대청 천장과 뒷문의 좁은 공간사이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맞바람이 되어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며 이때 저기압 현상이 발생한다. 맞바람이 통과하여 저기압 현상을 이루는 대청과 같은 곳은 건강에 좋지 못한 곳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6) 안방은 맞바람을 피하는 곳에 ; 전통건축에서 안방의 위치는 대청의 좌측이나 우측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안방의 위치는 마당으로부터 올라와 뒷문으로 빠지는 바람 길을 벗어난 지역, 즉 바람길 외부에 자리 잡고 있다. 바람이 없는 곳은 고기압 지대가 된다. 이와 같이 전통건축에서 안방의 위치는 바람 길을 피한 고기압 지대로 건강상 유익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7) 부엌에서 주걱의 움직임 ; 전통건축의 부엌 구조에 대한 이론으로 부엌에서 주걱으로 밥을 퍼 담을 때 주걱 끝이 부엌의 출입문 쪽을 향하면 복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좋지 못한 집이 된다는 이론이 있다. 주걱의 끝이 출입문의 반대쪽으로 가야 좋다는 이론이다. 부엌에서 주걱의 움직이는 방향과 주택의 길흉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론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 문제도 풍수지리 이론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된다.

주걱으로 밥을 퍼 담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채질 하는 동작과 유사하다. 부채를 흔들면 바람이 불게 된다. 출입문 쪽을 향하여 부채를 흔들다면 부채질 할 때 마다 바람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주걱 끝 방향으로 부엌의 출입문이 있다면 주걱으로 밥을 풀 때 마다 바람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 부엌 내부는 저기압 현상을 일으킨다. 밥을 푸는 자세에서 출입문을 향하여 주걱을 계속 움직인다면 이것은 밥 위에서 부채질을 계속 하는 것과 같이 밥에 있는 기운이나 영양기도 밖으로 빠져나가 잃게 된다. 기운이 빠진 밥을 사람이 계속 먹으면 기운을 잃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출입문이 없는 벽을 향하여 주걱을 움직인다면 바람은 출입문으로 들어와 벽에 부딪쳐 부엌 내부의 기압은 고기압이 된다. 이때 밥에도 고기압의 기운이 들어가게 된다. 고기압의 밥은 먹은 사람은 기운도 좋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 건축에서는 부엌의 구조에서 주걱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고기압이 되는 집을 좋은 집으로, 그리고 주걱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저기압이 되는 집은 좋지 못한 집으로 구분하였다.

8) 화장실은 측간 또는 뒷간 ; 우리 속담에 “화장실과 처가는 멀리하라”고 하였다. 이 속담 내용 중 “화장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유익하게

응용된다. 그러나 최근 “처가는 가까이 해야 한다”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딸에게도 부모의 재산이 상속 된다는 것이 다소 영향 있는 듯하다. 화장실을 멀리 하라는 말에 있어 기준점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풍수지리 이론으로 볼 때 기준점은 건물의 전면이 된다. 즉 화장실은 건물의 전면으로부터 먼 곳 즉 잘 보이지 않는 뒷면에 배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전면은 지대가 낮은 쪽에 있고 이곳에는 출입문이나 창문 등이 있다. 바람은 건물 전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건물의 실내로 들어간다. 건물 전면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의 악취는 바람 따라 실내 전 공간에 퍼지게 된다. 실내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화장실이 뒷면에 있다면 화장실의 냄새는 바로 건물 뒷면으로 빠져 실내에 냄새를 전달하지 못한다. 화장실은 멀리 뒷간으로 배치하라는 속담은 바람의 흐름을 터득한 매우 훌륭한 배치 이론이 된다.

9) 정자의 입지는 저기압 지대 ; 정자는 강과 산이 어우러진 경치 좋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정자에서는 강물이 멀리서부터 흘러 들어오고 또한 멀리 흘러 나가는 것이 보이는 풍광 좋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자는 시원한 바람을 잠깐 동안 쉼의 공간이다. 정자에는 취침공간이 거의 없다.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정자에서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정자에서 잠을 자면 건강에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풍수지리 이론으로는 정자 터와 같은 곳은 비록 전망은 좋아도 주거공간으로는 부적당한 곳으로 본다. 그 이유는 바람 때문이다. 정자가 사람의 주거 공간으로 부적당한 이유는 이곳이 바람이 많아 저기압 지대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주거 공간은 고기압지대이며 바람 많은 정자 터는 저기압 지대로 주거 공간으로 부적당한 것을 정자 터로부터 이해하게 된다. 즉 정자 터와 같이 지대가 높거나 강물이 멀리 보이는 지역은 바람이 많아 저기압 지역임으로 주거공간으로는 부적당한 곳이다. 이와 같이 경치 좋은 정자 터는 잠깐 바람 쐬는 공간으로는 적당하더라도 주거 공간으로는 좋지 못한 것은 정자 터가 저기압 지역이기 때문이다.

#### 4. 고층 아파트는 저기압, 저층 아파트는 고기압

일반적으로 아파트 중 고층 아파트를 로얄층이라 하여 저층 아파트보다 고급의 아파트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의 가격도 고층아파트가 저층아파트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풍수지리 이론으로 분석하면 고층아파트보다는 저층아파트를 명당으로 구분한다. 사람은 건강상 지기(地氣)를 많이 받아야하며 지기를 많이 받기위해서는 지표면(地表面)에 가깝게 살아야 좋다는 것이 풍수지리 이론이다. 고층으로 올라가면 지기가 부족하여 건강상 좋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기란 공기의 밀도(기압)<sup>5)</sup> 라고 해석 된다.

지표면에서부터 지상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기 때문에 아파트역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의 기압은 1013 hPa(헥타파스칼)이며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약 3층) 올라갈 때 마다 1hPa(헥타파스칼)씩 낮아진다. 필자는 건물의 층수와 기압 관계를 63빌딩(63층)의 각 층에서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이론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난초와 같은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고층아파트에서 죽어가는 난초를 1층의 수위실에 갖다 버리면 다시 살아난다. 이때 살아나 난초를 다시 고층으로 올리면 난초는 다시 죽는다. 고층아파트는 난초와 같은 식물의 성장에 좋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난초가 고층 아파트에서 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고층아파트에 사람이 오랜 기간 생활하면 저층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건강상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시간대라 하더라도 아파트의 층수에 따라 실내의 기압은 달라진다. 예컨대 2층 아파트의 대기압력은 1013hPa 이나 동일한 시간에 24층 아파트의 대기압력은 1007hPa이 된다. 24층 아파트는 2층 아파트에 비하여 6hPa 저기압이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저층은 고기압아파트로 그리고 고층은 저기압아파트로 차이가 발생한다. 기압 차이에 의하여 고층아파트에서

5) 주역에서 말하는 기(氣)를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바람, 에너지, 빛, 소리, 전파, 파동, 물, 그리고 열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표 1. 63빌딩의 층별 기압 (hPa)과 서울 대구 사이의 기압

1) 63빌딩 층별 기압 ( 2003.4.4. 필자 측정)				
1층 1012 hPa	3층 1011	5층 1009	8층 1008	11층 1007
13층 1006	16층 1005	18층 1004	19층 1003	21층 1002
23층 1001	25층 1000	28층 999	32층 997	34층 996
36층 995	39층 994	41층 993	45층 992	48층 990
50층 989	53층 988	55층 987	59층 985	63층 (264M) 986
1층과 63층 기압의 차이, 1012-986= 27 hPa, 건물 높이 264m, 10m/3층당 1hPa 감소				
2) 서울과 대구 사이의 기압 ( 2003.4.19. 9시 필자 측정)				
서울역 1012hPa	영등포 1010	수원 1008	오산 1011	천안 1008
조치원 1009	대전 1006	영동 996	황간 991	추풍령 986
직지사 986	김천 1002	아포 1001	구미 1006	왜관 1008
대구 1009				

거주하는 사람과 저층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생리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층에 오랜기간 거주한 사람은 체내의 고기압에 의하여 목소리가 크며, 소변이 멀리 뺏어나간다. 방귀소리도 고음으로 우렁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저층부에 거주한 사람의 양기도 강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층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은 저기압에 의하여 신체내의 기압도 상대적으로 저기압에 가까우며 그 영향으로 목소리가 작으며 소변이 질금질금 약하게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방귀소리 역시 저음으로 약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의 기압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층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한 여성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피부가 강한 탄력을 갖게 되며 목소리는 고음의 명랑한 소리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저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임신한 부인의 경우 체내의 고기압에 의하여 태아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수월하게 될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목소리도 고기압에 의하여 우렁차게 울게 된다. 그러나 저기압의 고층 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한 여성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피부는 탄력을 잃고 목소리는 저음의 탁한 소리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기압의 고층에 장기간 거주한 여인은 태아 분만 시 압력이 부족하여 출산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태어난 아기도 체내의 압력이 부족하여 첫 울음 소리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적으로 고층 아파트의 문제점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압과 인체와의 관계가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하실 공간은 비록 기압은 높아도 공기 중 습도가

높아 건강상 좋지 못하다.

## 5. 미국 본토의 고기압 명당

미국에서 명당을 찾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기압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동부지역에서부터 발달하였다. 뉴욕, 보스턴, 워싱턴 등 동부지역의 대도시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미국의 동부 지역 도시들이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은 이곳이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도시가 명당이라는 근거는 기압도에서도 증명이 된다.

미국에서 발행된 한 기압도는 미국의 동부와 중부, 그리고 서부 등 전 국토의 기압이 등고선으로 나타나 있다. 이 기압도에 의하면 미국의 동부지역 기압은 1008hPa로 가장 높고 동부지역으로부터 내륙으로 들어 갈수록 기압은 1004, 998 등으로 낮아진다. 미국의 중부지방은 가장 낮은 기압지대를 이루고 있다. 중부 지방으로부터 서해안으로 갈수록 기압은 다시 높아진다. 서해안 중에서는 위도가 높을수록 기압이 높아진다. L.A. 보다는 샌프란시스코의 기압이 높고,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시애틀은 더욱 높다. 미국의 서해안에서는 시애틀의 기압이 가장 높으며 시애틀의 기압은 동해안 지역과 동일한 고기압 1008을 이루고 있다.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의 고향은 시애틀이다.<sup>6)</sup> 빌 게이츠의 가족은 오래 전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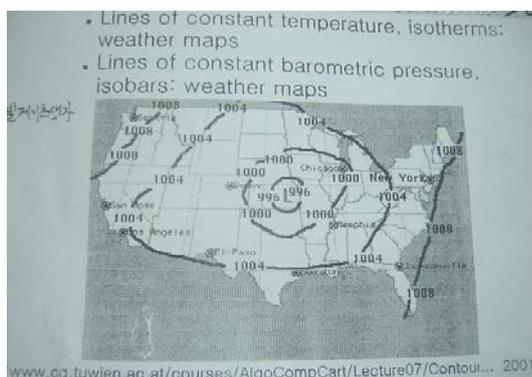


그림 2 미국의 기압도

6) 시애틀은 미국의 서부 해안가의 최북단 워싱턴주에 있는 비교적 큰 도시이다.

부자로 인정받고 있다. 시애틀에서 빌 게이츠처럼 큰 부자가 태어나고 성장한 것과 이곳이 고기압지대라는 사실을 결부해보면 풍수지리의 명당은 고기압 지대라는 사실이 미국에서도 입증되었다.

## 6. 결론

풍수지리이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주거 공간은 명당이다. 명당은 바람이 작은 곳이며 이곳은 기압이 높은 고기압지대이다. 반면에 바람이 많은 저기압 지대는 주거 공간으로 좋지 못하다. 난초가 고층 아파트에서 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고층 아파트에 사람이 오랜 기간 생활하면 저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건강상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게 된다. 풍수지리 이론으로 보면 고층건물 거주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병의 원인은 저기압과 관련된다고 분석된다. 비록 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풍수지리의 이론으로 분석하면 저층아파트는 고기압으로 명당이며 고층 아파트는 저기압으로 흉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부 여러 도시와 서부 시애틀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람에게 큰 행복을 주는 주거공간은 풍수지리상 명당인 고기압 지대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 참고문헌

1.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1999, 일빛 출판사
2. 이종환,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5.
3.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2001.
4. 김두규 역해, 지리신법, 장락 출판사
5.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 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 건축에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하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 8.